

하루를 시작하며



좌 정 목 시인·문학평론가

코로나19가 인류사회의 많은 삶의 양식들을 변화시켰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앞으로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것임에 틀림이 없다. 오랜 설 풍속도마저 달라졌다. 외지나 외국에서조차 고향으로 찾아 오던 이들도 아쉬운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마음의 선물을 들고 찾아뵙던 세배의 풍속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어디 이뿐인가. 경제 활동의 시장 개념도 급속도로 인터넷 플랫폼으로 전이될 것이 분명하다. 향후 몇

오늘은 가까이 다가가서

년은 이런 혼란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은 문득 가까이 다가서고 싶다. 지난겨울 몹시도 추웠고 따뜻한 남쪽나라인 제주에도 폭설이 내린 까닭인지 봄의 기운이 청명한 지금 이때에 밖으로 나가서 들길이라도 걸어보고 싶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봄을 맞이하며 꿈지락 거리는 모습들을 더듬어보고 싶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생명이 아닌 흙과 돌맹이 그리고 바람과 물에 대해서도 경원시했던 것처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생명의 조건인 셈이다.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윤선도(尹善道)의 '산중신곡(山中新曲)'에는 '오우가(五友歌)' 6수가 수록되어 있다. 그 여섯째 수에서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추니 / 밤중에 밝은 빛이 너만한 것 또 있겠는가/보고도 말이 없으니 내 벗인

가 하노라."라 하여 달의 불언(不言)을 노래했다. 불언이란 '노자(老子)' 2장에 의하면 성인의 가르침이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삭막한 천체물리학으로 보면 달은 태양계의 한 행성인 지구 주위에 매달린 위성이라 천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주주의 먼지인 암석질의 물체들이 응결돼 생성된 달이 윤선도에게는 성인처럼 보였으며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크기를 우리의 셈으로는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백혈구나 적혈구보다 훨씬 작다. 전자현미경으로 겨우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그러나 일반적 세균보다 훨씬 작은 병원체다. 21세기에 이르러 인간의 과학에 의해 만들어낼 수 있는 핵폭탄이 지구의 중심부에서 폭발한 것보다 더한 충격으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오랜 삶의 양식마저도 변화시키고 있다.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 21세기는 대변혁을 맞이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도대체 우리 인류가 자연을 향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공존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인 것일까. 제주도의 봄은 빛깔과 향기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들마저도 가슴이 뭉클하게 아름답다. 사계절이 뚜렷한 어느 지역이나 봄은 아름답다고 하겠지만 제주도의 봄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다. 이런 봄날 하루는 햇빛을 벗어버리고 자연 가까스로 가서 물어보거나 찾아보고 싶다. 언제나 그럴 만하긴, 지금도 그런가. 널 모래면 정월대보름이다. 그 달을 닮은 노란 산민들레라도 만나면 필적러 앉아 아무만져보겠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봄 햇살처럼 반짝일 터이고 나를 생각하면서는 오직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융융하게 필지도 모르겠다.

사설

'무늬만 특별자치도', 이젠 바뀌나가야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안이 나왔다. 개정안 초안에는 피부에 와닿거나 의미있는 과제가 많이 들어 있다. 녹지국제병원 추진 과정에서 도민 갈등을 야기했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특례 조항이 삭제된다. 도의회 인사청문 등의 대상도 확대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2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다시 추진된다.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행정시장 예고(러닝메이트) 의무화 및 4년 임기 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되 의회 동의 대상 중 도의회의 동의 대상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부처와 행정시장, 발전부 교육감도 도의회 동의를 얻는 조항이 추가된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감사위원장과 정부부처 등 2명만 인사청문회를 거처도록 돼 있다. 이밖에 교육위원 제도를

농민·소비자 울리는 원산지위반 안된다

외국산 값싼 식재료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아직도 극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를 속여 돈을 벌려는 알뜰한 상술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행위다. 소비자는 물론 농산물을 제값받아야 하는 농민들까지 울리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더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처벌수위도 대폭 높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지난해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의 경우 거짓표시, 미표시 등 53건을 적발했다. 지난 2019년 단속건수 78건보다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로 현장단속을 줄였고, 명예감시원들의 활동 제약에 큰 영향을 받은 때문이다. 시장이나 식당 등에서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활동을 제대로 못한 대신 통신판매업체 등 온라인을 대 중심으로 한 단속을 벌인 결과라서 실제 현장의 원산지 위반행위 감소가 아니라는 얘기가. 올해 설

열린마당

투명 페트병 등 분리 배출 함께해요



강 리 향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공동주택이 먼저 시행되고 올해 12월부터는 단독주택도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상에선 여전히 혼란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로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지자체에서 금지했던 일회용품이 임시로 허용됐고, 이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도 급증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포장재·배달용기 사용이 증가하며 플라스틱류 배출량도 급격히 늘었다. 이에 투명 페트병 등 플라스틱도 제대로 배출만 되면 고품질

재생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행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투명한 담아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또 유색 페트병은 기존처럼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투명페트병은 제대로 배출만 되면 고품질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투명페트병에 유색이 섞이면 상품으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 페트병에 부착된 비닐 라벨을 찢고 배출해 주면 그만큼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고 재활용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처럼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제도가 올해 12월부터 일반주택까지 확대되는 만큼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또 그동안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수입해 온 페트병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다.

뉴스-in

제주도·국토부 제2공항 '폭탄돌리기'

“환경부 떠넘기기 책임 회피” 모집한다고 23일 발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대상으로 진행되는 탄소포인트 대상은 휘발유·경유·LPG 차량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 송은범기자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정책반영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국토부가 '폭탄 돌리기'를 시작했다.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요구했고 이에 반창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론조사는 환경부가 요청한 것”이라며 환경부로 판단을 떠넘기는 발언. 이에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국토부가 환경부로 떠넘긴 것은 책임 회피라고 일침,고대리기자

“탄소포인트제 참여하세요”

○...제주에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운전자에게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실시. 제주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발표. 시 관계자는 “유도피야 갤러리에 대한 영상 제작은 시민들의 삶의 기억이 담긴 공간을 재현하는 것으로 사라져간 공간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카이빙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힘입. 백경탁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고대인(현대자동차) 아버지 제주고공 원봉(성주공과 前 회장·향년 86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23일 00시0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2월 24일(수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25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빈소
▶장 지: 양지공원-곽지리 선영
아 들 고대인 며느리 윤미숙 딸 고경희 사 위 서홍택 선유(경중) 강창우 경심 김석보 경지 김승환 손 자 고상현 외손녀 김수민 고상원 외손녀 강수민 손 녀 고지영 김지연 김희서 김주현 김소연
※연락처 고대인 010-3699-6380 고선우 010-2301-8100 강창우 010-7728-8100 고경심 010-8664-1805 김석보 010-8511-1805 고경지 010-3234-8277 윤미숙 010-4692-8254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만식(향년 8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24일
부 인 김기화 김소영 아들 강주행 며느리 현진숙 주우 김주희 주현 김주희 딸 강선희 사 위 백승묵 춘선 정성현 소옥 유성호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망 고창홍(1931. 8. 17.생)
•최후주소: 제주도 동대2길 12-1(건입동)
상기자는 2020년 10월 13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2월 2일 제주지방법원 2020년단1027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연 락 처: 제주도 동대2길 12-1(건입동)
송달장소: 제주도 구남로8길 17, 2층 (이도이동) 송달경수인 법무사 강원식
2021년 2월 24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고 성 봉

방수 단열 우레 탄 우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빙의·신들림 증세로 고생하시는분 상담환영
◆전화·대면상담 무료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융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064)746-078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제주대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